

第25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出演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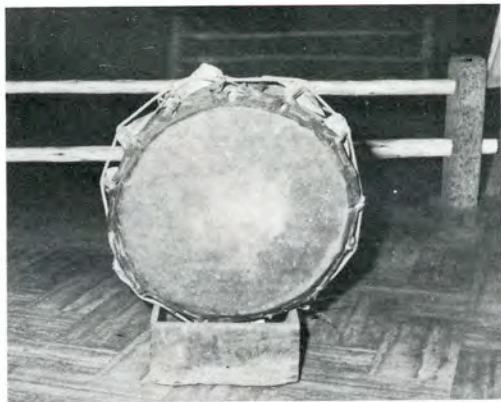
연신맛이 굿놀이



期間：1984. 9. 21 ~ 23
場所：忠清北道 忠州市
公設運動場

濟州道 北濟州郡

濟州島 民俗樂器



— 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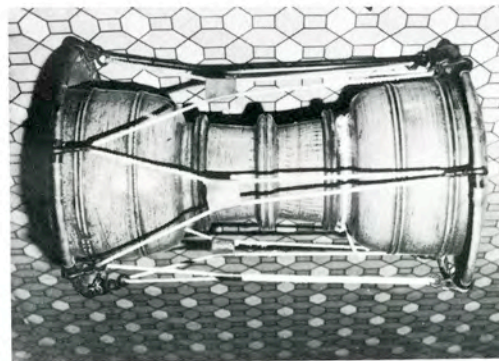
— 징 —



— 설쇠 —



— 요령 —



— 장고 —

人事의 말씀



「第25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가 由緒깊은 이곳 忠州市에서 그 華麗한 幕을 펼치게 됨을 衷心으로 祝賀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우리 濟州道는 三多三無의 獨特한 文化構造를 이루워 온 民俗과 民謠의 故장으로 서 耽羅先人들의 英特한 슬기와 얼이 아직까지도 우리 日常生活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特히 우리 北濟州郡은 아름답고 秀麗한 天惠의 觀光資源이 곳곳에 散在해 있어 所得面에서나 福祉面에서 어느 觀光都市 못지 않은 國際的인 觀光郡으로서의 새로운 跳躍의 基盤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뜻깊은 傳統民俗의 大祭典에 우리 北濟州郡에서는 本道의 傳統的인 民俗놀이인 「연신맞이 굿놀이」를 여러분께 첫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本大會를 通하여 우리民族의 傳統的인 文化遺産을 發掘 保存하여 民族의 主體性을 定立하는 새로운 契機가 마련되고 本郡의 民俗놀이를 通하여 濟州道의 土俗的인 民俗을 研究하는 學術資料로 活用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懇切히 바라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1984年 9月 日

北濟州郡守

김봉석

「연신맞이 굿놀이」

概 要

濟州道는 四面의 바다로 둘러쳐진 地理的 与件으로 漁業이 生活手段의 大宗을 이루어 왔으며 이에 따른 漁撈信仰이 生活 속에 뿌리내려 濟州의 한 文化現象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중에 “연신맞이 굿놀이”는 個人이나 또는 마을共同 漁撈用으로 배를 새로 지었을 때 하는 굿의 이름인데, 여기서 公演하는 것은 마을 共同 漁撈用으로 배를 짓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共同 出資로 모든 굿의 祭物 등을 準備해 놓고 연신(船王)을 모셔 앉혀 배의 安全과 豐漁를 비는 굿이다.

굿의 進行은 “초감제”(請神儀禮)에서 바다에 關係되는 모든 神들과 船王을 象徴的인 律動과 辭說로 써 모셔다 앉힌 後, 마을 사람들이 절을 올리고, 또 그들의 所願을 담은 소지(紙錢)를 태우고 나서 강태공 배목수를 다시 請해다 배를 짓는 過程을 模擬的으로 展開한다. 이는 神聖한 空間에서 建築 神이 배를 짓는 것으로 배의 諸般事를 관장하는 船王을 모셔 앉히기 위함에서이다.

이때 배목수는 영등산의 德든 나무를 베어다 배를 다시 模型的으로 짓는데 처음으로 베어낸 나무조각은 船王의 神體로 하여 배 밀창에 모시는 儀禮가 進行된다.

이와 같은 儀禮를 거치고 나서야 드디어 배는 出漁케 되는데 이는 濟州 先人들에서 連綿히 이어져 내려온 한 文化 形態로 呪術的 劇儀禮이라고 하겠다

○ 놀이의 진행

旗齣이가 대회기를 들어 앞서고 그 뒤에 정장한 수심방을 선두로 하여 수심방을 중심으로 그 옆으로는 祭主가, 그 뒤로는 소미(小巫)와 악사들이 악기를 울리며 따라온다.

그 뒤를 이어 동네 사람들이 배를 끌며 중앙으로 들어오는데, 바로 그 배 위에는 돛대옆에 두 사공이 서 있고, 노를 짓는 고물사공 그리고 선주 한사람이 돼지를 통채로 올린 祭壇앞에 무릎꿇어 앉아 두손을 합장하여 빌고 있다.

배 뒤로는 남녀 마을 사람들 다수가 “배 내리는 소리”를 부르면서 배를 끌며 들어온다.

중앙에 이르면 출연진 모두는 절을 올리고 각기 원을 그리며 제 위치에 가서 앉는다.

• 제 단 설 비

마을 사람들이 일어서서 제단으로 가서 제물 진설을 다 끝내면 초감제로 부터 굿은 시작된다.

• 초 감 제

수심방은 신칼과 요령을 들고 나서서 제단에 3배를 드리고 龍王과 船王神에게 祭를 올리는 연유를 창하고 배프치는 춤을 춘다.

• 군 문 열 립

격렬한 무악에 맞춰 수심방은 도랑춤을 추면서 神宮의 문(군문)을 여는 동작을 연희로써 보여 준다.

- 신 청 궤

수심방은 왼손에 쌀을 가득담은「산대」를 들고 오른손에는 「신칼」을 들어 신칼로 쌀을 조금씩 뿌리면서 한쪽에 마련된 「대령상」앞으로 가서 신(龍王, 船王)을 청해다 제단으로 모셔 들인다. (이와같은 동작은 2회에 걸쳐 반복됨)

다시 마을 토지관을 청해다 모시는 “신청궤”를 할 때에는 수심방이 마을 토지관(堂神)의 상징인 “팔찌거리” (오색천)를 팔목에다 묶고서 격렬한 도랑춤으로 堂神을 청해 드린다.

- 3헌관 절 시킴

마을대표 세사람이 제단앞으로 와서 절하고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한데 모은 소지도 태워 올린다.

- 요왕길 (龍王路) 침

놀이 마당 가운데에는 두줄로 20개의 뗏가지를 꼽아 놓는다. 이것은 험한 바다길을 상징적으로 형상화 시켜 놓은 것인데, 심방은 龍王을 비롯한 바다 세계를 관장하는 神들이 올 길을 치워 닦는 동작을 갖가지 춤과 행동으로 재미있게 보여 준다.

- 용왕문 열림

치워 닦은 길 앞으로 3헌관을 불러다 꿇여 앉히고 여러 문마다 인정(紙錢)을 걸면서 차례로 뗏가지를 뽑아 나간다.

• 강태공 배목수 청합

배앞에 선왕상(船王床)을 차려놓고 수심방이 한손에는 신칼 또 한손에는 향로를 들고 “신청케”을 하고 난 후 다시 향로만 켓상에 놓아두고 그 대신 선왕기(船王旗)를 손에 들어 다시 또 신청케를 한다. 이어서 선왕기를 놓아두고 강태공 배목수의 목걸이를 손에 들어 선왕상 앞으로 재차 가서 강태공 배목수를 큰소리로 부른다.

수심방(이하 “수”라고 함) : 강태공 뱃목시.!

강태공 배목수(이하, “강”이라고 함) : (대답없다)

수 : (선왕상 앞으로 가서 강태공 배목수를 다시 부른다)

강 : (멀리서 휘파람 소리만 내고 있다)

수 : (사방을 두리번 거리면서) 어디서 뭇소리는 나기는 남고만은?! (재차 사방을 두리번 거리며) 야. 이 소리가 남도로기 소리냐? 꽃쟁이 소리냐?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는구나. 또 한번 재차 불러보자(수심방은 선왕상 앞으로 위치를 옮겨 서고는) 강태공 뱃목시.!

강 : (먼데서 부터 들어오면서) 하하하

수 : (향로와 수건을 들고 잠시 춤을 추고 있다가 향로만 놓아두고 강태공 배목수 앞으로 달려가서 수건으로 목을 걸려 제단앞으로 끌어다 앉힌다)

강 : (웃으면서) 나를 왜 청했소?

수 : 당신을 청한 것은 오늘 북제주군 한림읍 마을 어작선(漁作船)을 지셨는데(만들었는데) 뱃목시를 청해다가 뱃나무 살성을 제초하여 풍어를 기원하고자 하는데 뱃목시는 어디를 멍겨왔오?

강 : 하하./ 나는 굴미굴산 대정곶, 정의곶, 선흘곶, 영실, 아흔아홉골을 돌아 땡기면서 좋은 뱃낭이나 있을까 찾아 땡겨요.

수 : 그러면 어찌 여기까지 내려왔소?

강 : 굴미굴산을 땡기다 보니 일만팔천 신전이 나에게 말을 하되, “어찌 뱃목시는 여기 있소?”

지금 북제주군 한림읍에서 모든 어민들이 강태공 뱃목시를 청하려고 요왕(龍王)과 선왕(船王)에 굶을 하고 있소” 라고 하기에 내 여기 찾아왔소./

수 : 아./ 잘왔소. 그러면 뱃목시는 열두 주이(연장)를 내어 놓고 금년 신구월 스무 이튿날 마을 풍선을 지었는데 강태공 뱃목시가 굴미굴산 곶은 낭을 베어 첫째 국밥을 내어 곶은 한당을 묻고 이낭 저낭 뱃나무에 살성이나 제초시켜 주시요.

그런데 한림읍 사람들이 뱃목수 굴미굴산 올라설 때에 차려준 추물(祭物)은 어떻게 했소?

강 : 하하 내가 신인데 어찌 그런 추물을 먹을수 있소. 산신제(山神祭)를 지내다 남은 것은 여기다 갖고 왔소./ (이렇게 한후 작은 떡서리(멜망탕이)에 담고 갖던 제물의 이름을 하나 하나 부르며 모두 마당 가운데로 내놓는다.

수 : 뱃목시는 무엇을 먹고 살았소?

강 : 나는 구름을 타고 빗름을 마시고 소리철곡을 하고 사에 의식을 하며 살았소. 빗름을 마시면 빗름똥을 싸고 이터다 보니 전 팔십 후 팔십 일백예순을 살았소.

수 : 그러고 보니 신에 태운 목시로 구면. 그런데 일천기덕은 어떻게 했소?

강 : 가지고 왔소. (도끼 한 자루만 들고 좌우, 양편으로 뒤집고 옆으면서) 요것은 대양기, 요것은 소양기, 번자
귀, 먹자귀, 대톱, 소톱

수 : 당신은 왜 도치(도끼) 하나만 들고서 이거니 저거니 하시오.

강 : 나는 이거 하나만 갖고도 팔모로 쓰지요. 그래서 신범훈 뱃목시라고 하는 것이오. 나는 요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상선(上船)도 짓고 중선, 하선도 짓고

수 : 뱃목시. 보시오. 아무리 신범훈 목시라고 해도 무쇠라고 혼건 밤이슬을 맞으면 녹이 쓰는 법이요. 그러니
녹이나 잘 닦고 뱃나무 살성이나 제조해 주시오.

강 : [떡을 솥돌로 삼고, 술을 솥돌물로 삼아 도끼를 갈면서 <나주 영산 회양산. 썰 노래 <도끼날 가는 노래>
를 부른다]

요 도치는 뱃나무 비는 도친데

나주 영산 과양썰로

이날 저날 돌아보자

요날은 돌아보니

머리털도 끊이나 보자

호번을 후들르민

아늑 ㄱ득 뱃나무도

호번 찍으민 들어나 눈다.

머리털은 불련 보난

노인네 머리털은 질겨지고

어린 애기 머리털은 야려지고

중년 머리털은 잘 나가는

도치로 구나

(노래를 마치고 일어서며 마을 사람 앞으로 달려 가서는 한사람의 머리털을 도끼로 베어내는 시늉을 해 보인다)

수: 놀을 다 풀아시민 요왕(龍王) 선왕(船王)님에 놀 감상하고, 이물, 고물 어느 방향으로 먼저 가며 좌우방도
 좃겨 봐야 할거 아니요.!

강: 그럼시다. (신전(神前)에 도끼의 날을 보이고 다시 배 앞으로 닥아가서 신칼로 점을 친 후) 이물로 가라고
 한다.!

- (이물 쪽에 있던 사공이 닻줄을 제단 앞으로 느슨하게 풀어 놓으면 강태공 배위로 올라간다. 이때에 악
 사들은 수심방과 같이 배위로 오르면 배목수는 다음과 같은 사설의 노래를 부리면서 도끼를 들어 배의
 여기 저기를 돌아다니며 나무를 베어내는 시늉을 보인다.

 악사들은 악기를 치면서 후렴하면 동네 주민들도 합창한다) -

 영등산에 이물코지 베자

 (영등산에 덕든 뱃낭 베자)

 영등산에 파란 코지 베자

 (")

 영등산에 허릿대 베자

 (")

 영등산에 고물낭 베자

 (")

강 : 다 배었져.!

수 : 뱃목시는 다 빈 거 닳아도 이 배에 중훈(중요한)님이 하나 있구나.

강 : 무슨 나무요.!

수 : 뱃목시.! 보시요. 옛날, 옛적 우리 제주 개관시에도 상선을 못자(만들려고) 할 때 굴미굴산 들어가 뱃나무를 끌어오던 한닷줄이 있지 않았소?

강 : 하하.! 그렇구나.! 그 닷줄을 끄치자 하면 신에 태운 목수라도 무섭고 석거와 나 힘으로 못 끄칠테니 이배에 한당 선왕 무슨 선왕님의 힘을 빌어야 하겠소. 그 힘을 빌려면 고사(告祀)를 지내야겠오.!

수 : 이물 더레 보시요. 뇌발공상(돼지)전머리 희생해다 놓고 선왕님이 좋아하시는 수시떡이나 수시밥이나 여러 음식을 다 출려 놓았소.

강 : 아.! 그러면 그렇지.! 내가 현관 노릇을 하고 내자 집소질을 해야겠소.!

(3배 절을 해 두고 돼지를 잡으면서 배의 중요한 부분에 잡은 돼지고기를 모두 올려놓고)자.! 이제는 고사를 올렸으니 한닷줄을 그치러 가자.! (이때 목수는 배 밑으로 내려와서 선주에게 닷줄을 잡게 하고 닷줄 밑에는 커다란 통나무가 놓여 있다. 이어서 목수가 다음의 노래를 선창하면 악사들은 악기를 치면서 후창한다)

요 배에 한닷줄랑
한당 선왕님과 내가 그치자.
초편 못 그치건 두번 그치자.
두번 못 그치건 세번 그치자.
요 닷줄도 그치자.

(이렇게 노래하면 닳줄을 끊는 동시에 함성이 터지고 선원들은 뱃노래를 부른다. 이때 수심방은 요란한 악기 소리에 맞추어 춤의 절정을 이룬다.

동네 사람들은 씨뿌림이 계속되고 사공들은 배 위에서 돼지다리와 막걸리를 가득담은 함지박을 들고 더덩실 춤을 춘다.

배를 떠나보낸 동네 아낙들은 계속 풍어와 무사고를 기원하는 지를 드리고, 젊은 남정들은 술을 부어 마시며 춤을 춘다.

배위에서는 춤이 멎고 뱃노래가 계속 이어지고 배는 중앙을 돌아 제 자리에 돌아오면서 놀이는 끝이 난다)

- 團 長 : 安 仕 仁 (重 要 無 形 文 化 財 第 71 號)
- 監 督 : 金 公 謙 (翰 林 民 俗 保 存 會 代 表)
- 資 料 提 供 및 考 證 : 玄 容 駿 (濟 州 大 學 校 教 授)
- 指 導 委 員 : 康 太 勳 (濟 州 道 文 化 公 報 擔 當 官)
- 梁 泰 助 (北 濟 州 郡 文 化 公 報 室 長)

• 出 演 者

- | | |
|-----------------|------------------|
| • 수 십 방 : 1 명 | • 해 너 상 군 : 1 명 |
| • 악 사 : 6 명 | • 어 부 : 2 명 |
| • 소 미 : 2 명 | • 사 공 : 2 명 |
| • 수 목 수 : 1 명 | • 기 수 : 4 명 |
| • 선 소 리 꾀 : 1 명 | • 젓 꾀 : 6 명 |
| • 춘 장 : 1 명 | • 동 네 주 민 : 32 명 |
| • 선 주 : 1 명 | 총 60 명 |

出 演 者 名 單

姓 名	住 所	性 別	年 齡	擔 當 役	姓 名	住 所	性 別	年 齡	擔 當 役
양 창 보	남군 남원읍 남원리	남	50才	수 십 방	김 성 수	명월리	여	64	해 녀 상 꾀
한 생 소	제주시 삼도 1 동	〃	49	악사(북)	홍 운 기	한림리	남	52	어 부
문 성 남	제주시 용담 1 동	〃	43	〃 (〃)	좌 달 생	〃	여	63	〃
김 평 수	남군 남원읍 남원리	〃	45	〃 (징)	장 계 선	〃	〃	58	사 공
강 순 선	제주시 삼도 1 동	여	43	〃 (〃)	이 순 대	〃	〃	44	〃
강 치 옥	제주시 용담 1 동	〃	44	〃(설쇠)	김 영 학	〃	남	20	기 수
고 순 안	구좌읍 하도리	〃	38	〃 (〃)	김 광 진	〃	〃	20	〃
문 순 실	〃 동김녕리	〃	24	소 미	고 창 협	〃	〃	24	〃
이 용 순	제주시 회북 1 동	〃	38	〃	양 원 보	〃	〃	22	〃
강 신 숙	〃 〃	남	47	수 목 수	김 인 순	〃	여	42	젯 꾀
고 인 택	한림리	〃	61	선 소리	박 인 규	〃	〃	46	〃
김 인 석	〃	〃	67	촌 장	임 월 량	〃	〃	44	〃
김 재 봉	〃	〃	54	선 주	김 영 희	〃	〃	53	〃

姓名	住所	性別	年齡	擔當役	姓名	住所	性別	年齡	擔當役
문정자	한림리	여	42	젓꾼	오원찬	명월리	남	46	동네주민
김정자	명월리	"	53	"	홍종익	"	"	54	"
문길정	한림리	남	41	동네주민	양우성	한림리	"	37	"
고성태	"	"	50	"	강창범	명월리	"	38	"
문원혁	"	"	67	"	이관진	한림리	"	21	"
고석년	"	"	41	"	양신자	"	여	43	"
임영진	"	"	55	"	이재춘	명월리	"	42	"
이성수	"	"	48	"	변춘선	한림리	"	45	"
진민식	"	"	67	"	이승화	"	"	56	"
강상용	"	"	45	"	진화순	명월리	"	55	"
김동진	"	"	24	"	김순여	한림리	"	43	"
이상호	"	"	24	"	임아순	"	"	38	"
김상현	"	"	21	"	문춘자	"	"	47	"
김만영	동명리	"	56	"	임영희	"	"	49	"
강성도	한림리	"	56	"	원오현	"	"	53	"
오경호	명월리	"	46	"	박구자	"	"	41	"
문동빈	한림리	"	51	"	양춘자	명월리	"		"

북제주군 위치도

